

毛澤東哲學思想 (I)

— 形成과 發展過程 —

金 昭 中

- 序 論
- I. 客觀條件
- II. 主觀條件

- III. 毛澤東 哲學思想의 形成과 發展
- IV. 結 論

序 論

毛澤東哲學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哲學을 半殖民地인 中國 被壓迫民族·人民의 革命運動이라는 具體的 實踐活動에 運用·發展시킨 것이다.¹⁾

毛澤東哲學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哲學思想과 마찬가지로 時代의 產物이며, 社會·歷史·世界의 各種現象을 觀察하는 總觀點이며 各種問題를 處理하는 根本的인 方法을 가리킨다.

19世紀末과 20世紀初, 中國人民이 反帝·反封建의 民族主義革命運動을

1) 毛澤東哲學思想은 엄격히 말해서 毛澤東 個人의 思想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中國共產黨과 人民의 集體鬭爭·集體智慧의 結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鄧小平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毛澤東同志의 事業과 思想은 모두 단지 그 個人의 事業과 思想만은 아니며, 동시에 그의 戰友·黨·人民의 事業과 思想이고, 半世紀이상의 中國人民 革命鬭爭經驗의 結晶인 것이다.” [鄧小平, “堅持四項基本原則,” 「鄧小平文選」(北京: 人民出版社, 1983), p. 159] 그러나 毛澤東 個人이 毛澤東哲學思想의 形成·發展에 가장 主要한 役割을 했기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毛澤東哲學思想」이라고 命名함은 妥當하다고 보며, 또한 毛澤東哲學思想을 分析해봄에 있어 毛澤東 個人을 代表로 하여 그 形成과 發展에 미친 主觀條件의 影響과 形成 및 發展의 過程을 살펴보는 것도 妥當하다고 본다.

展開하고, 계속해서 마르크스·레닌主義가 中國에 傳播되고 工人運動이 發展함에 따라, 毛澤東哲學思想이 孕胎되고 形成될 수 있는 社會·歷史條件이 造成되었다. 그러나 毛의 哲學思想 形成에는 客觀條件 外에 毛澤東 個人的 主觀條件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왜냐하면 毛澤東哲學思想의 形成과 發展에 대한 客觀條件의 影響은 더할나위없이 重要하나 毛澤東 個人에 固有的한 主觀條件이 客觀條件을 認識·放棄·吸收·批判的 繼承·應用하여 毛澤東의 獨特한 哲學思想을 形成·發展시키는데 또한 重要的 役割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毛의 哲學思想은 客觀條件과 主觀條件의 結合의 產物이기도 하다. 이 客觀·主觀條件에 대한 理解를 通해 毛澤東哲學思想의 性格을 뚜렷이 把握할 수 있고 나아가 中共의 新民主主義革命·社會主義革命 및 社會主義建設의 土臺가 되는 毛澤東哲學思想의 全內容을 容易하게 理解하는데 重要的 열쇠를 提供받게 된다.

그러면 이 論文에서는 먼저 客觀·主觀條件과 毛澤東哲學思想의 形成·發展過程을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毛澤東哲學思想의 全內容인 認識論·唯物辨證法 및 唯物史觀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I. 客觀條件

1. 時代條件

1840年 阿片戰爭 以後, 淸政府는 政治面에서 더욱 無力·腐敗하고 財政面에서 困難한 現象을 露呈했으며 社會財富는 점차 貴族·官僚·地主와 商人의 手中에 集中하고 土地兼併의 現象은 날로 深化되어 갔다. 또한 帝國主義列強의 侵略과 領土分割, 政治·經濟에 대한 壓迫과 收奪로 「中華思想」의 矜持는 一落千丈하고 國基가 흔들리자 「中學爲體·西學爲用」의 洋務運動과 政治·經濟制度의 改革을 위한 變法維新을 實施했으나 모두 失敗로 끝났고 드디어 1911年 辛亥革命으로 淸朝는 崩壞됐다. 이로써 二千餘年間 持續된 封建帝制는 그 幕을 내리고 中華民國이 成立했으나 封建

主義思想과 그 勢力은 여전히 뿌리가 깊었으며 封建軍閥勢力들의 統治와 그들간의 對立은 極度로 社會를 混亂된 局面으로 몰고갔다.

이러한 社會狀況에서 陳獨秀는 「新青年」을 創刊하여 「民主」와 「科學」의 旗幟를 높이 쳐들고 新文化運動을 倡導, 空前的 思想鬭爭을 展開했다. 즉 陳獨秀를 爲始한 新文化運動의 倡導者들은 人間意識을 改造하기 위해 먼저 三綱과 天命思想을 主張해온 孔子의 偶像을 打破하기 시작했으니 陳獨秀(1879~1940), 易白沙, 吳虞(1874~1943), 李大釗(1888~1927), 魯迅等은 文章을 發表하여 孔子學說을 攻擊하고 封建的인 舊文學과 文言文을 反對하고 新文學과 白話文을 提唱했으며 封建專制主義思想·封建倫理道德·封建迷信等에 空前的 打撃을 加했다. 즉, 西歐先進國의 挑戰에 直面하여 暴露한 그 無力·無能함의 原因은 孔子를 爲始한 封建傳統思想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를 打破하고 새로운 西歐의 民主·科學思想으로 武裝, 새로운 社會를 建設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美·日·西歐의 思想과 文物을 배우길 熱望하던 많은 젊은 知識人들은 「스승」이 「學生」인 中國을 指導하고 協助하기는 커녕 오히려 封建軍閥勢力들과 結託하여 非民主·非人道·不道德한 方法으로 中國人民에게서 各種 政治的·經濟的 利益을 掠奪해가는 것을 보고 크게 疑訝하게 생각하고 奮怒했으며 西歐列強을 점차 嫌惡 對反하는 民族主義가 澎湃하게 되었다.

2. 階級條件

全人口의 80%를 차지하는 農民中 大部分은 오랜 歷史期間 地主·官僚階級の 搾取로 因해 貧寒한 生活을 營爲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生活에 익숙해 있는 農民은 一般的으로 保守的이고 忍耐力이 무척 強렸으나 그들의 貧窮과 被搾取가 一定한 水準을 넘게되면 그들의 奮怒는 爆發할뿐 아니라 強力한 王朝조차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 農民의 蜂起는 孟子의 「暴君放伐論」으로 正當化되고 있는 것이다.

歷史적으로 보면 中國의 歷代 君主들이 모두 孔子와 孟子의 「仁政」思想

에 의거 善政만 했던 것은 아니며 大部分 各王朝의 君主와 貴族들은 人民에 대해 殘酷한 經濟的 榨取를 恣行했다. 따라서 秦王朝이래 二千年間 大部分 各王朝는 大規模의 農民蜂起를 經驗하고 있는데 이 農民蜂起는 王朝交替의 主要한 前兆가 되고 있으며,²⁾ 이렇듯 農民蜂起가 大規模로 頻繁히 發生할 程度로 農民生活이 어려운 處地에 빠져있었음을 볼 때 마르크스가 말하는 都市工業無產階級の 處地나 거의 다를바 없었고 그 貧困의 歷史는 대단히 길었다. 이로써 볼 때 中國革命에서는 農民이 오히려 勞動者階級보다 그 힘에 있어서 主力軍으로 登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毛澤東은 反亂을 일종의 美德으로 보고 (造反有理) 또 農民을 讚揚하는데 이는 農民蜂起의 傳統이 毛에게 影響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洪秀全을 崇拜하고 中國古代의 英雄豪傑의 故事나 戰爭·戰略·戰術 등을 좋아하며 國共合作時期에는 일찌기 農民의 革命力量을 認識하여 農民組合結成에 熱中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840年以後 外國商品의 大量輸入으로 中國自給自足の 自然經濟는 破壞되었으며 수많은 手工業工人과 農民의 破産은 中國資本主義 發展을 위한 勞動力市場을 提供하게 됐다. 그리고 1860年代부터 外國資本家의 中國內企業·中國官僚買辦企業 및 中國民族資本家企業이 發展함에 따라 工業無產階級이 成長하기 시작했으니 1894年 甲午中日戰爭 以前에는 約 10萬名³⁾

2) 歷史上 爆發한 有名한 農民蜂起는 다음과 같다.

- ① B.C.209~B.C.208, 秦朝: 陳勝·吳廣; ② B.C.207~B.C. 202, 秦朝: 劉邦·項羽; ③ A.D.17~25, 西漢後期: 王匡·王鳳(綠林), 樊崇(赤眉); ④ A.D. 184, 東漢末期: 張角(黃巾軍); ⑤ A.D.611~621 隋: 王薄·翟讓·李密·竇建德·杜伏威·輔公祐; ⑥ A.D.874~884, 唐末: 王仙芝·黃巢; ⑦ A.D. 993~994, 北宋: 王小波·李順; ⑧ A.D.1119~1122, 北宋: 宋江; ⑨ A.D. 1120~1122, 北宋: 方臘; ⑩ A.D.1351~1363, 元末: 劉福通; ⑪ A.D. 1356~1368, 元 : 末元璋; ⑫ A. D.. 1628~1647, 明末: 高迎祥·張獻忠·李自成; ⑬ A.D.1851~1864, 清末: 洪秀全·〔朝陽出版社編輯部編, 「中國歷史簡編」(香港: 朝陽出版社, 1980, 2版), pp.40~198을 참조할 것〕

3) 張靜如等, 「中國共產黨的創立」,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81), pp. 18~19.

이었던 것이 1914年 中國工人總數는 約 100~120萬名으로 發展⁴⁾ 했고, 1914年 第一次世界大戰이 爆發하자 1918년까지 帝國主義列強(英國·프랑스·러시아·독일·이태리等)이 戰爭에 沒頭했던 관계로 中國經濟가 크게 發展하면서 民族資本主義工業도 迅速히 發展, 1919年 「五·四」運動前에는 200萬이상으로까지 成長했다.⁵⁾ 이 工人 숫자는 전체인구에 비해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지만 그들이 대개 上海·天津·靑島·漢口·廣州等 產業中心地에 居住할뿐만 아니라 每地域마다 十萬名에서 數十萬名씩 集中해 있어 큰 力量을 發揮할 수 있었던 것이다⁶⁾ 이외에 都市手工業 雇傭勞動者는 約 1,200萬名이나 되고 또한 雇農과 農村中の 無產階級이 상당수 存在했다.⁷⁾ 이들 中國無產階級은 帝國主義·封建勢力·資產階級の 심각한 壓迫과 賃金搾取를 당하고 勞動時間은 보통 12時間에서 16時間이나 되어 대단히 悲慘한 生活을 營爲해 나갔다. 따라서 이들은 勞動條件과 生活條件의 改善을 위해 罷業을 不辭하는 勞動運動으로 發展해 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1912年에서 1919年 五四運動前까지 7년반동안의 罷業總數는 130餘次나 되고, 나타난 資料에 의거 年度別로 보면 1916년에는 17次, 1917年 27次, 1918年 30次, 1919年 5月以前에 19次였으며⁸⁾ 계속해서 1920년에는 46次, 1921年 49次로⁹⁾ 發展해 갔다. 이로써 볼 때 社會矛盾의 深刻性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注意해야 할 점은 中國工人의 大部分은 破産한 農民出身이어서 農民과 쉽게 聯盟을 맺을 수 있는 天然的 關係에 있으며 工農 모두 革命性이 強하다는 點이다.

3. 마르크스主義의 流入

바로 上記와 같은 時期에 러시아에 十月社會主義革命이 爆發했으나 1949

4) 張靜如等, 1981, 앞의 책, p. 21.

5) 胡 華, 「中國新民主主義革命史」(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81), p. 4.

6) 張靜如等, 1981, 앞의 책, p. 4.

7) 胡 華, 1981, 앞의 책, pp. 4~5.

8) 張靜如等, 1981, 앞의 책, p. 42.

9) 胡 華, 1981, 앞의 책, p. 23.

年 6月 毛澤東은 회고하여 말하길 “十月革命的 砲聲은 우리에게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가져다 주었다. 十月革命은 無產階級の 宇宙觀을 國家運命을 觀察하는 道具로 삼아 自己의 問題를 再檢討하도록 全世界와 中國의 先進分子들을 도와주었다. 러시아 사람의 길을 걷자——이것이 結論이었다.”¹⁰⁾ 고 했다.

十月革命이 全世界에 宣布하는 內容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① 資本主義制度를 顛覆시켜야만 工農人民은 비로소 主人이 될 수 있다, ② 帝國主義를 打倒해야만 비로소 被壓迫民族은 解放될 수 있다, ③ 마르크스主義만이 無產階級革命과 被壓迫民族解放鬭爭을 指導할 수 있는 思想的 武器라는 것이다.¹¹⁾ 이와같이 十月社會主義革命은 마르크스主義를 全世界에 大的으로 傳播시켰으니 中國에서도 이와 점차 結合해가는 方向으로 發展해갔다. 즉 러시아의 工農階級이 成功的으로 政權을 奪取, 資本主義(帝國主義)를 顛覆시켰다는 「砲聲」은 그토록 西方資本主義國家의 政治·經濟制度 實現을 熱望했던 中國知識人으로 하여금 러시아에 눈을 돌리게 하는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十月革命後 李大釗은 半年以上の 研究끝에 「프랑스와 러시아革命의 比較觀」·「庶民의 勝利」·「Bolshevism의 勝利」等 三篇의 論文을 <新青年>에 發表하여 十月革命의 「正當性」을 積極 讚揚했으니 이는 中國人民이 마르크스主義를 받아들이기 始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¹²⁾ 레닌이 마르크스主義를 運用하여 落後한 러시아를 勞動階級이 主導하는 社會主義國家로 變貌시켰음을 보고 落後한 農民이 絶對多數를 占하는 中國을 어떻게 改造시킬까에 오랫동안 苦心해오던 知識人들에게는 큰 鼓舞가 아닐 수 없다.

10) 毛澤東, “論人民民主專政”, 「毛澤東選集」, 第四卷(北京:人民出版社, 1966), p. 1360.

11) 張靜如等, 1981, 앞의 책, p. 53.

12) 中國知識界가 마르크스學說을 接觸하기 시작한것은 十月革命以前 20世紀前後이다. 그러나 이 마르크스主義學說에 別로 注意하지는 않았다.

4. 理論來源

마르크스主義哲學은 毛澤東哲學思想의 主要한 理論來源이다. 즉 毛澤東哲學은 마르크스主義哲學의 直接的인 繼承이며 發展인 것이다. 毛澤東을 爲始한 中國共產黨員은 마르크스·엥겔스·레닌·스탈린을 자신의 스승으로 보았으며 스스로 그들의 學生임을 自處해보았다. 이와 같이 毛澤東哲學思想의 基本範疇인 “思惟”·“存在”·“實踐”·“認識”·“辯證法”·“物質”·“意識”·“量變”·“質變”·“否定的 否定”·“對立面統一”·“生産力”·“生産關係”·“經濟基礎”·“上部構造” 등은 모두 마르크스主義哲學에서 由來한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主義哲學이 中國에 傳播되거나 中國革命의 實踐中에 具體的으로 應用되지 않았더라면 毛澤東哲學思想은 生成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毛澤東哲學思想이 中國의 優秀한 哲學的 遺産과 어떤 關係도 없다고 볼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다. 만약 中國民族의 理論的 思惟傳統과 豊富한 思想의 資料가 없었다면 中國民族의 特色과 風格을 띤 毛澤東哲學思想은 生成되지 못했을 것이다. 즉 毛澤東哲學思想은 주로 마르크스主義哲學에서 나온 것이지만 마르크스主義哲學의 指導下에서 中國古代哲學에서 重要한 要素를 批判的으로 吸收하여 마르크스主義哲學을 「中國化」한 것이다.

毛澤東哲學思想의 中國傳統哲學에 대한 批判的인 繼承은 다음과 같은 事實에서 볼 수 있다.

① 中國傳統哲學의 思惟形式인 “實事求是”·“形而上學”·“矛盾”·“一分爲二” 등을 運用하고 여기에 새로운 內容과 意味를 賦與하여 唯物辯證法의 基本思想을 闡述함으로써 歐洲式的 마르크스主義哲學을 「中國式」으로 바꾸어 놓았고,

② 마르크스主義哲學 基本原理의 指導下에 中國哲學思想에 있어 長期間 爭論이 그치지 않던 問題——“知와行”·“理와氣” 卽 “認識과 實踐”·“精

神과 物質”의 關係——를 分析함으로써 마르크스主義哲學의 基本原理를 豊富하게 했으며,

③ 中國의 辯證法思想의 成果를 繼承하여 毛의 軍事辯證法思想의 形成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점이고,

④ 中國民族 理論思维의 獨特한 風格을 繼承하여 哲學性이 많이 포함된 比喻·格言·成語(a set phrase)·典故(an authentic precedent) 등을 잘 運用하여 具體적이고도 生動感있게 마르크스主義哲學을 闡明했다.¹³⁾

II. 主觀條件

毛澤東哲學思想의 形成·發展에 있어 主觀條件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毛澤東은 學生時期에 農村과 工場等에 깊이 파고 들어가 그 實情을 調査하길 잘 했다. 그리고 자기의 國家를 알아야만 한다고 주장, 실제로 知識과 經驗을 쌓는데 主力했다.

② 青年時期에 哲學方面에 깊은 關心을 表하고 마르크스主義哲學이 傳來한 後에는 이를 熱心히 學習했으며 中國의 特殊性에 根據하여 應用하는데 眞摯했다.

③ 忍耐力이 強하고 事物에 대한 分析을 잘하며 革命氣魄과 實踐力이 強하여 理論과 實踐의 結合을 重視하고 또 마르크스主義의 一言一句에 얽매이지 않고 中國의 具體的인 實際問題에 根據하여 이를 應用하는데 能했다. 또한 自身을 波瀾 많은 英雄豪傑에 比喻하길 좋아하고 浪漫的이고 理想的이며 空想的인 面이 強했고 包容성과 領導力이 있어 追從者가 많이 따랐고 黨內에서 가장 높은 理論水準을 維持했다.

④ 自己가 아는바를 남에게 傳授하길 좋아하고 文章力이 뛰어난 바 있으며 歷史와 文學에도 興味가 많아 平素에 冊을 가까이 했다.

13) 李 克等, 「毛澤東哲學思想研究」(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83), pp. 15~23.

이상으로 毛澤東哲學思想의 形成·發展에 必要한 客觀·主觀條件을 살펴 보았다. 다음에는 毛澤東哲學思想의 形成 및 發展過程을 分析해 보도록 하겠다.

Ⅲ. 毛澤東 哲學思想의 形成과 發展

마르크스에 의하면 “每社會의 時代는 모두 자기가 偉大한 人物을 必要로 한다. 만약 이러한 人物이 없다면 그 時代는 그러한 人物을 創造할 것”¹⁴⁾ 이라고 했다. 毛澤東은 이러한 時代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毛는 1893年 12月 26日 태어나서 1976年 9月 9日 死亡할 때까지 83年間の 生涯中, 1919年(26歲) 湖南軍閥 張敬堯를 驅逐하기 위한 鬪爭活動을 起點으로 政治活動에 參加하기 시작하여 1921年(28歲) 中國共產黨 創造黨員으로 活動한이래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事業을 위해 55年을 보냈고 적지않은 “功績”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先天的인 마르크스主義者였던 것은 아니다. 毛는 마르크스나 Engels와 마찬가지로 青年時期에 唯心主義에서 唯物主義로, 革命的 民主主義에서 共產主義로의 變化過程을 겪은 것이다. 이 過程을 두 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후에 비로소 毛澤東의 哲學思想이 初步로 形成되기 시작하였고 또 계속 發展해 나갔던 것이다.

1. 早期哲學思想(1911~1918)

毛澤東은 農民家庭出身으로 어렸을 때는 佛敎를 깊이 믿었고 1901~1906年 사이 故鄉 韶山에서 書堂에 다니며 「四書」·「五經」을 배웠으며 孔子를 崇拜했다. 이때 「西游記」·「水滸傳」·「三國志演義」等 小說을 耽讀했고 또한 廣東人 鄭觀應이 西方世界의 來侵可能性과 中國의 富強之道에 대해 쓴

14) 馬克思, “1848年至 1850年的法蘭西階級鬪爭”, 「馬克思恩格斯全集」, 第7卷(北京:人民出版社, 1965), p. 72.

「盛世危言」과 列強이 中國을 어떻게 分割하고 있는가를 記述한 한 小冊子를 읽고 “國家興亡·匹夫有責”임을 認識하기 始作, 救國救民의 뜻을 품게 되었다.¹⁵⁾

1910年 湘鄉縣이 세운 東山高級小學校에 入學하여 經書와 新學을 배우게 됐고 康有爲와 梁啓超를 가장 欽慕하게 되었다. 東山高級小學校에서 공부한지 半年만에 1911年初 長沙에 있는 湘鄉駐省中學堂에 入學한 후 비로소 孫文이 이끄는 同盟會의 存在를 알게 되었고 同盟會가 發刊하는 <民立報>의 反清言論과 革命事績에 깊이 感動받은 바 있으며 孫文을 崇拜하게 되었고 毛의 思想은 革命的 民主主義로 向해가기 시작했다. 또한 辛亥革命이 武昌에서 勃發하자 곧 新軍에 參加하여 學生軍으로 活動했고 이때 몇가지 新聞을 購讀, 政治時事와 社會發展에 注意를 集中하는 習慣을 불렀다. 半年後 軍에서 退役한후 몇군데 學校에 다니다가 科目等に 不滿을 품고 自退, 以後에 約半年間 省立湖南圖書館에 다니면서 수많은 18·19世紀 西方社會政治學說·哲學·文學·自然科學等 分野의 著書를 耽讀했다.¹⁶⁾ 自學의 收穫은 매우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13年春에서 1918年夏까지의 湖南省立第一師範學校(五年制)에서의 求學生活은 毛에게 대단히 重要的 時期였다.

在學時節, 毛는 더욱 孔子(B.C.551~479)에서부터 王船山(A.D.1610~1692)까지의 中國古典哲學과 「五·四」前의 國事와 思潮·西方唯心主義哲學의 影響을 받고 自己의 早期哲學思想과 政治的인 觀點을 形成하기 시작했다. 特히 칸트(Immanuel Kant : 1724~1804)派의 二元論哲學家인 F.

15) 李 銳, 「毛澤東早期革命活動」(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0), pp. 6~7.

16) 肖 三, 「毛澤東同志의 青少年時代和初期革命活動」(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80), pp. 38~39. 이 당시 읽은 책으로는 대체로 다윈의 「種의 起源」, 아담·스미스의 「國富論」, 존·스튜어트·밀의 「Logic 體系」, 콩테스큐의 「法の精神」, 스펜서의 「社會學原理」, 루소의 「民約論」, 헉슬리의 「進化論과 倫理學」의 一部分을 번역한 「天演論」 및 其他 古代의 詩과 로마의 文藝作品等 多數가 있으며 이러한 冊은 대개 嚴復(1853~1921)이 翻譯한 것이다.

Pulsen의 著書〈倫理學原理〉에서 많은 影響을 받았고¹⁷⁾ “物質不滅·精神不滅”의 二價論의 觀點을 提起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在學期間은 革命的 民主主義思想의 發展時期였다. 즉 “이 때 나의 思想은 自由主義·民主改良主義·空想社會主義等 思想의 發端사니었다. 나는 「19世紀의 民主」·유평피아와 舊自由主義를 憧憬했으나 軍閥과 帝國主義를 反對했던 것만은 의심할바 없이 分明했다.”¹⁸⁾ 毛澤東의 世界觀이 이러한 “思想의 發端사니”의 特徵을 露出한 것은 偶然이 아니다. 이것은 「五·四」運動前 各種社會思潮가 中國에 流入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毛는 孔孟儒學·宋明理學에서 王船山에 이어지는 封建的 傳統哲學. 康有爲(1858~1927)·梁啓超(1873~1929)·嚴復·孫文(1866~1925)의 近代思想에서 陳獨秀(1879~1940)·李大釗(1888~1927)로 이어지는 新文化思想, 칸트의 二元論, 18·19世紀 歐洲民主主義·空想社會主義·無政府主義等을 모두 接觸했던 관계로 毛의 思想은 몹시 混亂되어 있었다. 그리고 1917年 8·9月 毛는 新文化運動의 影響下에 康有爲·梁啓超의 改良主義主張을 徹底히 拋棄하고 陳獨秀를 “思想界의 明星”으로 보게 된다.¹⁹⁾ 그러나 러시아 十月革命前 毛澤東의 歷史觀은 基本的으로 唯心主義였다. 즉 毛는 社會歷史發展의 基本原因이 偉大人物의 思想動機에 있다고 생각했다. 1917年 8月 親友에게 보낸 편지에서 精神의인 것이 社會의 「大本大源」이요, 「經濟現象은 「枝葉」으로 보았다. 또 聖賢만이 群衆을 깨우쳐 聖域에 이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英雄史觀을 지니고 있었다. 이 當時 아직 마르크스나 레닌의 著作은 接한

17) 이 책은 1913年 蔡元培(1868~1940)가 翻譯한 것을 1917~1918年 楊昌濟가 講義敎材로 삼았다. 이 책을 읽고 毛는 「心之力」이라는 글을 써서 楊昌濟敎授의 稱贊을 듣고 100點 滿點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毛는 個人의 價値를 重視하고 個性의 解放을 強調했으며 儒家의 德目인 三綱과 宗教·資本家 및 君主 4가지는 「天下의 惡魔」라고 批判했고, 새로운 思想과 知識을 追求하고, 實踐을 最高의 義務로 해야 한다고 主張(吾人須以 實踐至善爲義務)했다. (李銳, 「毛澤東同志의 初期革命活動」(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57) pp. 42~43.

18) Edgar Snow, *Red Star over China* (New York; Grove Press, Inc., 1968), pp. 148~149.

19) 丁守和, 「中國現代史論集」(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0), p. 232.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二年이 안되어 革命的 民主主義에서 마르크스主義로의 大轉變이 이루어진다.

이 湖南第一師範學校 在學時節 社會實踐을 대단히 重視하여 群衆과의 聯繫 및 社會環境에 대한 調査에 注意했는데 1917年 여름과 겨울에 毛는 親友와 湖南農村地區의 狀況을 調査하기도 하고 1917年 11月에는 工人夜學을 開設하여 가르치면서 社會의 中堅力量은 바로 배우지 못한 工農群衆이라고 指摘하고 그들의 文化·知識水準을 提高할 것을 強調했다.

또한 1918年 4月 14日에는 學友를 中心으로 「新民學會」²⁰⁾를 結成했는데 이것이 發展하여 共產黨員을 輩出하는데 重要的 役割을 했다.

2. 唯心主義에서 唯物主義로의 世界觀轉化(1918. 8. ~1921. 初)

1918年 8月 毛澤東은 新民學會會員의 파리留學 「勤工儉學」을 準備하기 위해 처음으로 北京에 가게 됐는데 이때 北京大學 圖書館長인 李大釗를 만나게 되었고 圖書館에서 約半年間 일을 보면서 처음 마르크스主義를 접하게 되었다. 毛는 李大釗의 影響下에 李大釗가 組織하는 北京大學 哲學學會에 參加하였고 신속히 마르크스主義로 發展해 갔다. 當時 北京大學은 新文化運動의 中心이어서 學術思想이 대단히 活氣찼고 新舊思想鬭爭도 激烈했다. 李大釗는 러시아 十月革命에 대단히 鼓舞되어 1918年 7月 1日 <新青年>에 「프랑스와 러시아革命의 比較觀」, 同年 11月 15日 역시 <新青年>에 「庶民의 勝利」·「볼셰비키主義의 勝利」等 論文을 發表, 熱烈히 十月革命의 勝利를 歡呼했고 “將來의 地球를 보라, 반드시 赤旗의 世界가 될 것이다.”라고 의쳤다. 그러나 또 한편 毛는 空想社會主義·無政府主義·日本 小路實篤의 新村主義等に 影響을 받기도 했다. 特히 當時 크로포

20) 1918. 4. 18. 毛의 친구 蔡和森(1895~1931)의 집에서 주로 學校校友를 中心으로 한 13名이 모여 結成했는데 그 學會의 章程은 「學術을 革新하고 品行을 닦으며 人心과 風俗을 改良함을 宗旨로 삼는다」고 規定하고 또 「不虛僞·不懶惰·不浪費·不賭博·不狎妓」를 守則으로 規定했다. (丁守和, 앞의 책, 1980, p. 236). 이 會員은 五·四運動時에는 7·80名으로 發展했다.

트킨의 互助論과 無政府共產主義의 影響은 비교적 컸다. 크로포트킨은 私 有財産制度를 反對하고 一切의 權威를 反對하며 人類가 「互助」의 進化中에 正義·平等·自由의 原則과 「能力껏 일하고, 必要에 따라 分配받는다」 共產社會를 實現하자는 主張을 폈기에 많은 知識靑年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毛는 1919年 4月 湖南省 長沙로 돌아오자 新村을 建設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成事되지 못했다. 이때 마르크스主義가 中國에 傳入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毛는 여전히 探索中에 있었던 것이다.

「五·四」運動과 더불어 마르크스主義가 廣範하게 傳播되기 시작했다. 毛는 新民學會會員을 中心으로 하여 湖南學生運動에 積極 參與하고 얼마 후 7月 14日 <湘江評論> 週報를 創刊했고 이때부터 서서히 唯心史觀에서 唯物史觀으로 轉化하기 시작했다. 毛는 創刊詞에서 “世界에서 무슨 問題가 가장 큰가? 먹는 問題가 가장 크다. 무슨 힘이 가장 강한가? 民衆의 힘이 가장 강하다.”²¹⁾고 마르크스主義의 觀點에서 民衆의 力量과 먹는 문제의 重要性을 力說하고 官僚도 軍閥도 資本家도 두려워할 것 없다고 主張하고 또 社會制度의 根本은 經濟制度라고 認識을 새로이 하는 發言을 했다. <湘江評論> 第4號(1919. 8. 4.)에서는 “天下는 우리의 天下요, 國家는 우리의 國家이며 社會도 우리의 社會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하겠는가? 한시도 늦출수 없는 民衆의 大組合을 우리는 마땅히 積極 進行하자!”고 國家主人의 態度로써 人民의 鬭爭精神을 鼓舞하고 있는 것이다.

毛澤東은 民衆의 力量을 認識하고 民衆聯合의 重要性을 強調했으니 이는 러시아의 十月革命과 「五·四」運動에서 民衆의 力量을 認識하고 「民衆의 大聯合」思想을 披瀝한 것이다. 毛의 생각에 의하면 近世의 強權階級 즉 貴族·地主·資本家의 聯合統治가 “國家를 極도로 나쁘게 만들었고, 人類

21) 毛澤東, “創刊宣言”, 「湘江評論」, 第1號(1919. 7. 14). 丁守和, 앞의 책, 1980, p. 241. 에서 再引用.

를 極度로 苦痛속에 빠뜨렸으며, 社會를 極度로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問題解決의 “根本的인 方法은 바로 民衆의 大聯合”이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또 十月革命의 勝利는 工農勞動人民 大聯合의 勝利임을 말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民衆의 大聯合으로 貴族의 大聯合·資本家의 大聯合에 對抗해서 「社會革命」의 勝利를 거두었다.” 이는 “一國의 民衆은 一國의 貴族資本家 및 其他 強權者보다 많기”²²⁾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貴族·資本家 및 其他強權者들은 비록 武力·金錢·知識이 있어 이것에 의존하여 자기들의 特殊利益을 保護하고 民衆을 擄取하지만, 그들은 少數에 不過하기 때문에 일단 大多數民衆이 自覺하면 聯合하여 그들을 넘어뜨릴 것이라고 믿었다. 毛는 이러한 見解에 根據하여 辛亥革命의 敎訓을 分析했는데 辛亥革命은 學生·哥老會·新軍 등이 創造해낸 것으로 民衆의 大多數와는 조금도 關係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²³⁾ 오직 人民群衆을 動員하고 民衆의 大聯合을 實現해야만 革命을 勝利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毛澤東은 또한 帝國主義의 侵略性을 認識하기 始作했다. 第一次 世界大戰은 두 “國際強權”의 戰爭으로 보았는데 “協約國政治와 國際의 強權이 프러시아·오스트리아 政治와 國際強權을 打倒한 것이며” 協約國은 입으로는 平等과 正義를 말하지만 實際로는 “똑같은 強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리에서 서로 다투는 것은 土地와 賠償問題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帝國主義國家에 대한 “最後의 審判”日은 到來할 것으로 보고 人民은 幻想을 떨쳐버리고 帝國主義와 鬪爭할 것을 促求하면서 人民이 일어서서 鬪爭할 때 人類는 비로소 眞正으로 解放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²⁴⁾

以上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毛澤東은 러시아革命을 贊成하는 初步的

22) 毛澤東, “民衆의 大聯合”, 「湘江評論」, 第2號(1919. 7. 21). 丁守和, 앞의 책, 1980, p. 242. 에서 再引用.

23) 丁守和, 앞의 책, 1980, p. 243.

24) 毛澤東, “世界雜評”, 「湘江評論」, 第1號, 丁守和, 앞의 책, 1980, p. 242.

인 共產主義思想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아직 完全히 마르크스主義者가 된 것은 아니었다. 思想面에서 여전히 여러 思想이 뒤섞여 있고 마르크스主義의 暴力革命과 無產階級專政의 思想도 缺乏되어 있었다.

1919年 7·8月頃 毛澤東은 <湘江評論>에서 民衆聯合을 여러번 強調하면서 強權을 打倒한뒤 社會主義를 實現하는 方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르크스가 主張하는 激烈한 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크로포트킨이 提倡하는 溫和한 方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하길 “強權者도 모두 사람이고 모두 우리와 同類다.” 그들이 우리를 壓迫하는 것은 “그들이 自覺치 못한 誤謬요 不幸이며, 舊社會·舊思想이 그들을 傳染시키고 害롭게 한” 結果이니 “그들이 마음을 고쳐 일을 하고, 사람을 돕고 해치지 않기만 한다면” 그들을 죽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強權을 사용해서 強權을 打倒하면 結果는 여전히 強權을 초래할 뿐이니 이는 서로 矛盾될뿐 아니라 조금도 效果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後者 즉 크로포트킨의 主張을 贊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群衆은 聯合하여 強權者에게 持續的인 忠告運動을 벌여야 하며 無血革命을 일으킨 뒤에는 地球가 聯合하여 一國이 되고 人類가 聯合하여 한 家族이 되며 和睦하게 지내고 더불어 太平盛世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²⁵⁾ 또 1919年末에는 「新村」建設을 計劃하기도 했는데 이상과 같은 思想은 確實히 唯心史觀인 것이다.

革命思想을 宣傳하는 同時에 毛澤東은 湖南의 軍閥 張敬堯를 驅除하는 運動과 湖南自治運動에 參加하여 實踐의 經驗을 쌓았다.

毛澤東은 두번째로 北京에 가 있는 동안(1919. 12. ~1920. 4) 共產主義와 러시아革命에 관한 書籍을 求하여 熱心히 研究하고 또 李大釗와 여러차례 討論한 後 그의 革命思想은 飛躍的인 發展을 했다. 毛는 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25) 楊熙曼·周養儒, “毛澤東同志是怎樣從民主主義者轉變爲馬克思主義者的”, 馬齊彬·周逸, 「毛澤東建黨思想與黨史研究」(長沙;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4), pp. 52~53.

“내가 두 번째 北京에 가있는 期間, 러시아狀況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다. 나는 그때 그리 많지 않은 中文으로 쓴 共產主義書籍을 구할 수 있는데 까지 열심히 구했다. 세권이 특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데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나의 믿음이 세워졌다. 내가 일단 마르크스主義는 歷史에 대한 正確한 解釋이라고 받아들인 以後 나의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믿음은 動搖된 적이 없다. 이 세권은 陳望道譯 <共產黨宣言>·카우츠키(Kautsky)著 <階級鬭爭>·키르킵(Kirkup)著 <社會主義歷史>다. 1920年 여름에는 理論的인 면에서나 어느정도 行動的인 면에서 나는 이미 마르크스主義者가 되었고 이때부터 스스로 마르크스主義者라고 생각했다.”²⁶⁾

1920年 4月 北京에서 上海로 간 毛는 當時 上海에 머무르면서 프랑스에 갈 準備를 하고 있는 新民學會會員들을 召集하여 學會의 宗旨를 「改造中國與世界」로 다시 規定하고 學會는 長沙에 두기로 했다. 이때 毛는 上海에 있는 陳獨秀를 만나 마르크스主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깊은 印象과 함께 影響을 받고 7月에는 長沙로 돌아왔다.²⁷⁾

이때부터 毛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傳播를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文化書社」라는 書店을 내고 마르크스主義研究會를 組織했다. 또 同年末에는 湖南共產主義小組과 湖南社會主義青年團을 組織했다.

1920年初 프랑스에 「勤工儉學」으로 留學간 新民學會會員 4名은 7月上旬 5日間 會議를 開催하고 「改造中國與世界」의 方法에 대해 激烈한 辯論을 벌였는데 革命과 改良이라는 서로 다른 意見의 兩派가 出現했다. 蔡和森을 爲始한 多數는 中國將來의 改造는 社會主義原理와 方法을 適用해야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卽刻 共產黨을 組織하고 러시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主張하고 特히 無產階級專政과 國際主義精神을 重視했다. 한편 蕭子升을 中心으로 한 少數人은 中國과 世界의 改造를 實現하기 위한 革命

26) Ibid., p. 155.

27) Ibid., p. 154, 157.

에 있어서는 一部分의 犧牲을 代價로 多數의 幸福을 가져오는 그러한 方法은 採擇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溫和한 革命 즉 教育·工會 또는 合作社等을 통해서 平和的인 方法으로 社會革命을 遂行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러시아式(또는 마르크스式) 革命方式을 正當하다고 생각지 않았으며 러시아十月革命의 經驗에 懷疑를 품고 단 한번의 처방으로 어떻게 天下人民의 病을 고칠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兩方은 모두 詳細한 件지를 毛澤東에게 띄워 그 意見을 물었다.

1920年 12月 1日 毛澤東은 蔡和森과 여러 會員 앞으로 寄 答狀을 보냈는데 蔡가 말한바와 같이 中國은 반드시 社會主義의 러시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主張에 “깊은 贊同을 表示”하고 蕭子升의 改良主義方法에 同意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毛의 見解에 의하면 첫째 教育을 하자면 金錢과 사람과 教育機關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資本家·地主 및 地主의 代理人의 手中에 있으며 이들은 議會·政府·法律·軍隊·警察·銀行·工場等을 利用하여 자기들의 利益을 保障하고 工人과 農民을 反對하기 때문에 教育이 不可能하고, 둘째 共產黨員이 政權을 잡지 않고 어떻게 教育權을 잡아 教育을 통해 革命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現在 世界의 教育은 純全히 資本主義教育이 아닌가, 세계 世上을 觀察해 보건대 資本家에게 教育을 통해 共產主義를 믿게하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며, 네째 歷史上 모든 專制主義者·帝國主義者·軍國主義者들은 남이 밀어붙이기전에는 결코 자리를 물러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섯째, 또 平和的 方法으로 共產의 目的에 도달하자면 어느 때나 가서야 成功할 수 있겠는가? 만약 100年이 必要하다면 이 100年中 呻吟하는 이 無產階級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섯째 現在 無產階級은 世界人口의 大多數를 占하고 있으며, 이미 자기네들이 말고 있는 苦痛의 由來를 認識하고 있기에 이런 苦痛을 벗어나길 要求하고 革命을 要求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革命과 各國共產黨의 發展은 完全히 必然的인 結果인데 이런 狀況에서 그들보고 또 資本家の 「밥」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1920年 9月 蔡和森은 또 毛에게 편지를 띄워 唯物史觀과 카우츠키의 修正主義, 共產國際(第三國際)成立後 各國革命運動의 大勢, 볼셰비크와 멘셰비크入黨條件上的 原則的인 區別等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中國共產黨組織에 대한 準備事項을 詳細히 記述했다. 이 편지에 대한 答狀을 1921年 1月 21日 띄웠는데 여기서 毛는 唯物史觀은 黨哲學의 根據임을 同意하고 蔡意見에 完全히 贊同한다고 썼다.²⁸⁾ 덧붙여 黨의 組織이 이미 進行되고 있으며 上海에는 <共產黨>이라는 雜誌가 刊行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주었다.

사실은 이와같이 回答하기前 毛는 먼저 1921年 1月 1日부터 3日까지 (3日間) 長沙에서 新民學會 新年大會를 舉行하고 「改造中國與世界」의 方法을 討論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다른 各種主義를 比較하고 결론적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만이 中國과 世界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毛는 말하길 國內에는 社會問題의 解決에 있어 兩派의 主張이 있다고 指摘하고 “一派는 改造를 主張하고, 다른 一派는 改良을 主張하는데 前者는 陳獨秀等이요 後者는 梁啓超·張東蓀等이다.” 그런데 改良의 方法은 補修하는 方法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땅히 大規模改造를 해야한다고 主張하고, 나아가 當時 世界에는 社會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方法에 있어 ① 社會政策, ② 社會民主主義, ③ 激烈한 方法의 共產主義(레닌主義), ④ 溫和한 方法의 共產主義(렛셀主義), ⑤ 無政府主義等 몇가지가 있는데 “社會政策은 더진곳을 membership하는 政策이라 方法이 될수 없으며, 社會民主主義는 議會를 改造의 道具로 삼고 있으나 사실상 議會의 立法은 결국 有産階級을 保護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無政府主義는 權力을 否認하기 때문에 이런 主義는 아마 永遠히 그 目標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溫和한 方法의 共產主義 즉 렛셀이 主張하는 바는 極端的인 自由와 資本家의 放任으로 이것도 역시 永遠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激烈한 方法의 共產主義 즉 所謂 勞農主義는 階級專政의 方法을 利用해서 預期의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採用하기가 가장 適合하다”²⁹⁾고 主張했다. 따라서 毛는 結論的

28) 李 銳, 앞의 책, 1957, pp. 132~137을 參照할것.

으로 絶對的 自由主義·無政府主義·民主主義等은 理論上 듣기에는 좋으나 사실상 이룰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직 階級鬭爭과 暴力革命을 통해서만 反動階級的 統治를 무너뜨리고 無產階級專政을 建立해야만 眞正으로 社會를 改造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改良主義를 反對한 것이다.

當時 李大釗와 李達等은 北京에서 <每週評論>·<新青年>等 刊行物을 통해 「三次大論戰」³⁰⁾을 展開했는데 1919年 7·8月의 胡適의 實用主義·改良主義와의 論戰; 1920年 11月 및 1921年 2月 梁啓超·張東蓀等 「研究系」 社會主義의 階級調和論과의 論戰; 1920年~1921年 黃凌霜等 無政府主義者의 絶對自由·國家政權無用論과의 論戰을 통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擁護와 傳播에 主力했는데 毛는 바로 이러한 論戰에서 많은 影響을 받고 上述의 暴力革命을 主張했으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立場에 선 것이다. 이로써 毛는 過去에 지냈던 一切 其他思想을 털어버렸다.

毛澤東은 當時에 工人·農民도 國家의 主人임을 強調하면서 國事に 發言權이 있음을 깨우쳐 주고 政治는 政治學이나 法律學을 배운 特殊階級단의 일이 아니라 大多數人民의 重大한 責任임을 알아야 한다고 力說했다.³¹⁾

1921年 7月에는 毛澤東은 何叔衡과 같이 湖南을 代表하여 上海에서 開催한 中國共產黨 第一次全國代表大會에 參席했으니 毛는 完全히 마르크스·레닌主義者가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毛澤東의 革命民主主義에서 마르크스主義로의 轉變은 學習과 實踐, 다른 思想과의 鬭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3. 毛澤東哲學思想의 初步形成(1921~1930)

毛澤東은 마르크스主義를 接한지 3年만에 中國共產黨員이 되었고 이후 더욱 積極的인 活動을 벌여 1921年 8月 16日에는 湖南의 共產黨과 青年

29) 「新民學會會務報告」, 第2號, 丁守和, 앞의 책, 1980, pp. 249~250.

30) 劉 嶸, 「毛澤東哲學思想概述」(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83), pp. 36~38. 을 參照할 것.

31) 丁守和, 앞의 책, 1980, p. 252.

團幹部の 理論水準을 強化하고 同志들을 集結시키며 自由로운 學習과 共同研究을 爲해 「自修大學」이란 것을 創設하였고 1923年 4月 15日에는 〈新時代〉月刊誌를 發行했다. 또한 「中國勞動組合書記部」 湖南支部의 書記가 되어 1922年에서 1923年까지 많은 工人運動을 領導하고 工人罷業을 組織했다.³²⁾

그러나 中國全般에 걸쳐볼때 마르크스主義理論水準은 낮아 이를 어떻게 中國革命에 結合시킬것인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1921年에서 1927年 「國內革命戰爭」의 失敗時까지 黨의 主要한 路線·方針·政策等은 共產國際의 決議에 根據하여 制定했다. 이런 狀況下에서 毛澤東哲學思想은 萌芽狀態에 있었는데 이 標誌가 되는것이 바로 「中國社會各階級的分析」(1926. 3.) 과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1927. 3.)이다.

前者에서 毛는 中國社會 各階級의 經濟的 地位 및 革命에 對한 態度를 分析하고 中國의 實際情況에 비추어 民族資產階級에 對해 깊이있는 分析을 했다. 또한 「新民主主義革命」의 對象·領導力量 및 同盟軍의 問題를 다루었다.³³⁾

이로부터 一年以後 毛澤東은 當時 過熱된 農民運動에 對한 黨內外의 叱責에 答하기 爲해 湖南의 農村에 가서 32日間 調查研究한後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를 썼다. 毛는 農民革命의 「正義性」을 讚揚하고 中國革命에 있어서의 重要問題인 無產階級의 農民運動領導의 重要性을 強調했다. 毛는 農民이 經濟狀況이 다름에 따라 革命에 對한 態度도 서로 다름을 分析했는데 富農은 革命에 消極的이고, 中農은 流動的이며, 貧農은 農村人口의 70%以上을 占하는데 農民協會의 中堅이요 封建勢力 打倒의 先鋒임을 指

32) 이때 毛澤東은 湖南의 安源·水口山·奧漢鐵路·長沙의 工業工人과 手工工人을 組織하여 罷業鬭爭을 領導하고 20餘個의 工會를 建立했다. 이 組織의 人員은 約 4·5萬에 達했는데 이들에게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基礎理論을 學習시켰다. (李銳, 앞의 책, 1957, p.162).

33) 毛澤東, “中國社會各階級的分析”, 「毛澤東選集」, 第一卷(北京: 人民出版社, 1966)를 參照할것.

摘했다. 따라서 毛는 強調하길 “貧農이 없으면 革命이 없다. 만약 그들을 否認하면 바로 革命을 否認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을 打擊하면 바로 革命을 打擊하는 것”³⁴⁾이라고 했다. 이 理論은 後에 「農村包圍城市」(농촌이 도시를 포위한다)는 革命方法의 基礎가 됐다.

1927年 「八·七」會議에서 中國共產黨이 獨立的으로 武裝을 갖출것을 確定지었고, 몇차례 武裝暴動을 일으켰다. 1927年 9月 毛澤東도 湖南·江西의 「秋收暴動」을 일으켰으나 失敗하고 敗殘兵을 이끌고 井岡山에 逃亡가서 工農武裝割據鬭爭의 新局面을 形成했다.

1928년부터 1930년까지 毛는 〈中國的紅色政權爲什麼能夠存在?〉·〈井岡山的鬭爭〉·〈星星之火, 可以燎原〉 등의 論文을 發表하여 中國社會矛盾의 特殊性을 分析, 中國社會政治·經濟發展·不平衡의 特徵과 規律을 밝히고 農村이 都市를 包圍하고 工農武裝割據를 實行하여 마지막으로 全國의 政權을 奪取하는 革命方法을 提示했다. 즉 이 理論에는 無產階級領導下의 土地革命·武裝鬭爭 및 革命根據地建立의 內容을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毛는 黨內 陳紹禹를 中心으로 한 國際派가 마르크스主義를 「教條化」하고 共產國際決議나 蘇聯의 經驗을 지나치게 「神聖化」하는 傾向에 反對하여 中國國情에서 出發하여 獨立的으로 中國革命의 實際問題를 解決할 것을 主張함으로써 그들과 鬭爭을 벌여왔던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30年 5月 毛는 「反對本本主義」를 發表했는데 이것이 毛澤東哲學思想의 初步形成을 意味한다. 이것은 바로 理論과 實際를 結合한 「中國化」한 마르크스主義哲學의 第一篇論文이다. 즉 全體의으로 볼때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革命의 實際와 結合시킬 것을 主張한 論文이다. 따라서 毛는 中國現實에 대해 「調査를 하지 않으면 發言權이 없다」고 主張하고 “반드시 唯心主義精神을 벗어나리고, 一切社會主義와 盲動主義의 出現을 防止”해야 한다고 했으며 最後에 “마르크스主義의 本本은 學習해야 하나 반드시 我國의 實際狀況과 서로 結合시켜야 한다” 따라서 “中國革命鬭

34) 毛澤東,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 앞의 책, 196, p. 21.

爭의 勝利는 中國同志가 中國狀況을 理解하는데 달려있다”는 論斷을 明確히 提示했다.³⁵⁾ 따라서 이 論文에는 毛澤東思想의 中心思想 卽 「實事求是」 「群衆路線」 및 「獨立自主」의 세가지가 包含되어 있다.

毛澤東은 1927年李大釗가 殺害되고 陳獨秀가 黨書記에서 물러난뒤 그가 따르고 배울만한 理論家가 없었다. 따라서 毛는 스스로 社會主義革命 理論鬭爭面에서 레닌의 役割을 하면서 國際派의 「教條主義」를 反對, 中國의 特性에 비추어서 마르크스主義를 應用할 것을 主張, 그가 마르크스主義를 接한지 12年만에 所謂 「中國化」한 마르크스主義哲學—毛澤東哲學思想을 初步形成한 것이다.

4. 毛澤東哲學思想의 成熟(1930~1945)

毛澤東哲學思想은 初步形成後 한편 進一步 體系化·理論化되는 반면 또 한편 全黨과 全國人民이 認識하고 利用하여 巨大한 物質力量으로 化하는 過程을 거치게 되었다.

陳紹禹(王明: 1904~1974)의 「左」傾路線이 毛澤東을 排斥하고 蔣介石의 第五次 攻擊에 直面하여 敗하게 되자 中共軍은 長征을 하게 됐는데 이때 全黨은 王明의 教條主義形式으로 出現하는 主觀主義의 危害性和 毛澤東의 「實事求是」³⁶⁾ 思想路線의 正確性을 認識하게 되어 1935年 1月 遵義에서 開催된 黨中央政治局擴大會議에서 毛澤東의 領導地位를 確定하게 되었다. 그러나 王明의 「左」傾路線에 대해 理論적으로 體系的인 批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935年 10月 中國共產黨中央이 陝北에 到着後 第一次·第二次 「國內革命戰爭」의 經驗을 決算하고 革命實踐을 正確히 指導하기 위해 毛澤東은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 特別 辯證唯物主義와 歷史唯物主義

35) 唐志, 「馬克思主義基礎知識300題」(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84, 2版), pp. 24~25; 「辭海」(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0), pp. 37~38; 李克, 앞의 책, 1983, pp. 35~36. 을 參照할것.

36) 「實事求是」에 대한 毛澤東의 說明은 毛澤東, “改造我們的學習”, 「毛澤東選集 第三卷」(北京: 人民出版社, 1966), p. 759를 參照할것.

의 研究를 대단히 重視하게 되었다. 毛는 革命運動을 指導하는 政黨이 만약 革命理論이 없고 實際運動에 대한 深刻한 理解가 없다면 勝利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同時에 思想面에 있어서 王明的 「左」傾路線을 清算하기 위해서도 毛는 發憤하여 讀書했다. 그 結果 毛는 많은 글을 發表하게 됐는데 「論反對日本帝國主義的策略」(1935. 12.)과 「中國革命戰爭의戰略問題」(1936. 12.)에서 唯物論과 辯證法의 基本原理를 運用하여 中國革命戰爭의 特徵을 分析하고 革命戰爭의 規律을 밝혔으며, 마르크스主義의 軍事辯證法을 發展시켰고, 戰爭指導思想에 있어서의 主觀主義를 批判했다.

1937年 7月과 8월에 걸쳐 各各 發表된 「實踐論」과 「矛盾論」은 毛澤東 哲學思想의 成熟을 意味한다. 毛는 마르크스主義認識論과 唯物辯證法의 基本原理를 創造性있게 밝히고 主觀主義 特히 教條主義의 錯誤에 대해서 認識論과 方法論의 측면에서 마르크스主義의 「普遍原理」와 中國革命의 具體的인 實踐과의 結合에 대해 論述했다. 「實踐論」은 마르크스主義의 實踐觀을 全面的으로 闡述한 것인데 主觀과 客觀, 理論과 實踐, 知와 行의 關係를 論述함으로써 마르크스主義의 認識論을 發展시켰고, 「左」右傾機會主義는 모두 主觀과 客觀, 認識과 實踐이 서로 分裂됨을 特徵으로 한다고 指摘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原理」는 반드시 中國革命의 具體實踐과 서로 統一시켜야 한다고 主張했다. 「矛盾論」은 全面的으로 主要矛盾과 次要矛盾, 矛盾의 主要方面과 次要方面의 原理와 矛盾의 同一性和 鬭爭性의 辯證關係를 論述했는데 이는 哲學上 教條主義와 經驗主義가 矛盾의 普遍性和 特殊性의 辯證統一을 서로 다른 方向에서 갈라놓는 錯誤를 犯하고 있음을 밝히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原理」를 반드시 中國革命의 具體的인 實踐과 서로 結合시켜야 한다는 思想을 闡明했다.

毛澤東은 친히 抗日軍政大學에서 辯證唯物論을 講義하기도 했는데 毛는 이 當時 마르크스主義哲學을 軍事·政治·經濟·文化·黨의 建設等 各方面에 運用하고, 「實踐論」·「矛盾論」의 哲學原理를 軍事學說·社會革命理論·

黨의 建設理論·思想方法和 工作方法的 理論等に 廣範圍하게 運用했다. 그리고 毛澤東思想의 「靈魂」인 「實事求是」·「群衆路線」·「獨立自主」도 이 時期에 體系化되었다.³⁷⁾

毛의 「戰爭和戰略問題」(1938. 11.)·「論持久戰」(1938. 5.)·「抗日游擊戰爭의 戰略問題」(1938. 5.)等 軍事著作은 同時에 哲學著作이기도 한데 軍事辯證法의 最高成果라고 할 수 있다.

「中國革命和中國共產黨」(1939. 12.)·「〈共產黨人〉發刊詞」(1939. 10.)·「新民主主義論」(1940. 1.)·「論聯合政府」(1945. 4.)等 著作은 中國歷史의 特徵 中國革命과 世界革命의 關係를, 革命의 對象·任務·動力을, 그리고 中國革命의 性質과 前途等 問題를 論述하고 敵을 이기는 「三大法寶」인 統一戰線·武裝鬭爭과 黨의 建設理論을 樹立했다.

毛는 中國共產黨 成立以來 黨內思想鬭爭의 經驗을 決算하고 「改造我們的 學習」(1941. 5.)·「整頓黨的作風」(1942. 2.)과 「反對黨八股」(1942. 2.)等 著作을 發表했는데 이는 延安整風運動으로 全黨員에 對해 마르크스主義의 普遍的인 教育運動을 展開하기 始作한 것을 말하며, 그 主要內容은 主觀主義를 反對하여 學風을 바로 잡고, 宗派主義를 反對하여 黨風을 바로잡으며, 黨八股를 反對하여 文風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主觀主義를 反對하여 學風을 바로 잡자는 것이 中心이었는데 이는 黨內教條主義와 經驗主義 錯誤의 根源을 分析하고 主觀主義(即 唯心主義와 形而上學)의 認識路線을 批判하면서 「實事求是」의 認識路線을 提示했던 것이다. 이로써 마르크스主義哲學의 中國化를 상당히 實現하게 됐다.

毛는 特히 마르크스主義哲學을 大多數群衆속으로 스며들어가게 했고 黨의 一切 實際業務에 運用하는 것을 重視했다. 그래서 毛는 「〈農村調查〉의 序言和跋」(1941. 3. ~4.)·「領導方法的若干問題」(1943. 6.)等을 發表, 實事求是·調查研究·矛盾分析法·一般과 個別的 結合·領導와 群衆의 結合·

37) 李克等, 앞의 책, 1983, pp. 36~39.; 熊復等, 「毛澤東哲學思想淺釋」(北京: 紅旗出版社, 1983), p. 8; 劉嶸, 앞의 책, 1983, pp. 63~64. 을 參照할것.

群衆路線 등의 思想方法과 工作方法을 提示했다.

毛는 또한 「青年運動의 方向」(1939. 5.) ·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 講話」(1942. 5.) · 「紀念白求恩」(1939. 12.) · 「爲人民服務」(1944. 9.) · 「愚公移山」(1945. 6.) 등을 통해 어떻게 無產階級世界觀과 人生觀을 세울것인가에 대해 깊이 論述했다.

以上과 같이 毛의 努力으로 毛澤東思想(毛澤東哲學思想을 包含)은 中國共產黨 第七次 全國代表大會(1945. 4. 23~6. 11.)에서 正式으로 黨의 一切 工作의 指針으로 規定되고 黨章에 明文化되었다.

5. 毛澤東哲學思想의 發展(1945~1976)

抗日戰爭이 끝나고 國民黨과의 鬭爭이 再開되자 毛는 「論聯合政府」(1945. 4.) · 「關於重慶談判」(1945. 10.) · 「目前形勢和我們的任務」(1947. 12.) · 「在晉綏幹部會議上的講話」(1948. 4.) · 「在中國共產黨 第七屆中央委員會 第二次全體會議上的報告」(1949. 3.) · 「論人民民主專政」(1949. 6.) · 「丟掉幻想, 準備鬭爭」(1949. 8.) · 「唯心歷史觀的破產」(1949. 9.) 등에서 마르크스主義의 歷史唯物主義를 發展시켰다. 毛는 “人民, 오직 人民만이 世界歷史創造의 動力”³⁸⁾이라는 歷史唯物主義의 基本觀點을 論述하고, 歷史進歩를 沮害하는 腐敗한 帝國主義와 一切 反動派는 그 “本性을 바꾸지 않을 것”³⁹⁾이기 때문에 人民은 어떤 幻想도 갖지말고 組織해서 그들과 鬭爭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上記의 論文에서 「新民主主義革命」에서 社會主義革命理論으로의 轉變理論을 體系的으로 論述하면서 「民主革命」을 徹底히 推進하여 「三座大山」(帝國主義·封建地主階級·官僚買辦資產階級)을 무너뜨리고 無產階級이 領導하고 工農聯盟을 主體로한 「人民民主專政」의 共和國를 建立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毛는 또한 마르크스主義의 「經濟基礎에 대한 上部構

38) 毛澤東, “論聯合政府”, 「毛澤東選集」, 第三卷(北京; 人民出版社, 1966), p. 932.

39) 毛澤東 “丟掉幻想, 準備鬭爭”, 「毛澤東選集」, 第四卷(北京; 人民出版社, 1966), p. 1375.

造的 反作用」의 理論에 根據하여 人民民主專政의 國家政權이 將來 社會主義經濟變革에 미치는 巨大한 推動作用에 대해 說明했다.

中共政權樹立後, 毛의 見解에 의하면 資產階級과 無產階級の 矛盾이 國內의 主要矛盾이 되었는데, 毛는 民族資產階級の 兩面性 및 이 階級の 無產階級에 대한 矛盾의 特徵을 具體的으로 分析하고 “我國의 具體的인 條件下에서 이 두 階級の 對抗性矛盾의 處理가 妥當하면 非對抗性 矛盾으로 轉變될 수 있고 平和의 方法으로 이 矛盾을 解決할 수 있다.”⁴⁰⁾고 主張했다. 이에 根據하여 工人階級과 民族資產階級間의 矛盾을 人民內部的 矛盾으로 處理하고 政治的으로는 民族資產階級에 대해 團結·批評·改造의 政策을 取하고, 經濟的으로는 國家資本主義의 方式으로 民族資本主義工商業에 대해 利用·制限·改造의 政策을 實施하고 平和的인 購買方式을 使用해서 個人工商業의 社會主義改造를 達成했다. 同時에 農村에 대해서도 모형을 세워 試範을 보이고 自願과 緩慢한 合作化의 原則으로 農民과 手工業者를 合作化해 나갔다.

특히 1956年과 1957年初에 毛는 「論十大關係」(1956. 4.)·「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1957. 2.)·「在省市自治區黨委書記會議上的講話」(1957. 1.) 등과 黨의 「八大」文獻을 통해 社會의 各種 矛盾을 調查研究하고 矛盾의 普遍性和 特殊性的 相互聯結의 「原理」를 堅持하고 「對立統一規律」이 여전히 社會主義社會의 「基本規律」임을 認識하고, 社會主義社會의 基本矛盾은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 經濟基礎와 上部構造의 矛盾이지만 社會主義社會의 이러한 矛盾은 舊社會의 基本矛盾과 根本的으로 다른 性質을 띠고 있다고 強調했다. 毛는 또한 「敵我矛盾」과 「人民內部矛盾」의 性質이 서로 다른 두가지 社會矛盾 및 矛盾解決方法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方法과 人民內部矛盾에 대한 正確한 處理를 國家政治의 主題로 삼을 것을 提起하고 그 方針을 制定했다. 따라서 毛는 또한 重工業과 輕工業·農業

40) 毛澤東,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 「毛澤東選集」, 第五卷(北京; 人民出版社, 1977), p. 365.

과의 關係, 沿海工業과 內地工業과의 關係, 經濟建設과 國防建設, 中央과 地方, 國家·集體·個人等等 矛盾的 對立統一關係를 잘 處理할 것을 強調하고, 一切 積極的인 因素를 動員하고 一切 團結possible한 사람을 團結하며, 消極的인 因素를 積極的인 因素로 바꾸어 社會主義社會를 建設할 것을 提起하고 있다.⁴¹⁾

以上과 같이 1945年부터 1957年初까지 毛의 哲學思想은 더욱 發展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57年에서 1966년까지 毛는 思想의 指導에 있어서 「左」의 錯誤를 犯했다. 1960年 下半期 毛는 三年間의 「大躍進」에 스스로 犯한 「主觀主義」를 깨닫고 糾正하기 시작하여 1962年 「七千人大會」에서는 다시 實際에서 出發하고 「實事求是」하자는 思想路線을 提起했다. 그러나 毛는 徹底히 「左」傾性向을 解決하지 않은데다 1957年以後 헝가리事件과 右派의 黨에 대한 攻擊에 臨하여 毛는 社會主義條件下的 階級鬭爭形勢를 深刻하게 받아들여 長期間 階級鬭爭을 지나치게 主要問題로 생각하게 되고 또한 個人的으로 社會主義建設成果에 대해 嬌慢心이 發生하여 理論的인 面에서 一貫해서 主張해온 「實事求是」原則을 스스로 背反, 實際와 群衆에서 離脫하여 主觀的인 意志와 努力의 힘을 誇大評價하게 되었다. 이 主觀主義와 階級鬭爭의 擴大化는 1966年에서 1976년까지의 「文化大革命」의 災難으로 계속되었다. 이렇듯 毛는 晩年에 世界觀과 思想方法에 있어서 스스로 毛澤東哲學思想의 「基本原則」을 違背했다.

毛澤東이 死亡하고 1978年 5月 全國에서는 「實踐은 眞理를 檢證하는 唯一한 標準」(實踐은 檢證眞理의 唯一標準)이라는 討論을 展開하고 思想面에 있어 解放을 가져오고 中共黨 第十一期三中全會(1978. 12.)에서는 長期間 存在해오던 教條主義와 個人崇拜思想을 攻擊하고 黨의 「實際에서 出發하고, 理論과 實際를 聯繫하여, 實事求是하고 實踐中 眞理를 檢證하고 發展시키자」는 思想路線을 다시 確立하고 毛澤東이 犯한 「左」傾의 錯誤를 糾

41) 劉 嶸, 앞의 책, 1983, pp. 71~75. 를 參照할 것.

正해 나가고자 努力하였다.

中共黨 第十一期六中全會(1981.6.)에서는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를 通過시켜 建國 32年間の 歷史經驗을 檢討하고 長期間 存在해온 「左」傾錯誤와 毛澤東의 晩年の 錯誤를 分析·批判했으며, 毛澤東의 功績과 毛澤東思想의 歷史的인 地位를 充分히 肯定하고 있다. 이 「決議」는 無產階級과 資產階級の 矛盾을 社會主義社會의 主要矛盾으로 보고 여기에서 發生된 階級鬭爭擴大化的 錯誤를 指摘한 후 “社會主義改造가 基本的으로 完成된후 我國이 解決해야할 主要矛盾은 人民의 日益增長하는 物質文化에 대한 需要와 落後한 社會生産間의 矛盾이며”⁴²⁾ “搾取階級으로서의 階級이 消滅된 후 階級鬭爭은 이미 主要矛盾이 아니다.” 그러나 “階級鬭爭은 아직도 一定한 範圍內에 長期間 存在하게 될 것이고 어떤 條件下에서는 또 激化될 可能性도 있다.”⁴³⁾고 指摘했다. 따라서 現在 中共은 毛의 哲學思想中 正確하다고 생각하는 部分은 堅持하고 錯誤라고 생각하는 部分은 修正하여 새로운 歷史條件下에서 毛澤東哲學思想을 堅持하에 發展시켜가고자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IV. 結 論

毛澤東哲學思想은 客觀條件과 主客條件의 有機的인 相互作用속에 또 中國革命이라는 具體的인 實踐속에서 毛澤東을 爲始한 中國共產黨員의 共同鬭爭活動과 마르크스·레닌主義가 結合하여 形成·發展해왔다. 毛澤東哲學思想의 形成發展過程은 곧 全體中國共產黨員 哲學思想의 形成·發展過程이라고 할 수 있으며 唯心主義에서 唯物主義, 革命的 民主主義에서 마르크스主義로의 思想的 變貌過程을 거쳐 드디어 「中國化」한 마르크스主義哲學

42) 三聯書店,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香港; 三聯書店, 1981), p. 51.

43) 三聯書店, 앞의 책, 1981, p. 53.

을 形成·發展시켰음을 보았다. 이 毛澤東哲學思想은 앞으로 계속 中共의 社會主義建設에 있어 指針이 되어 政治·經濟·社會·文化·道德·藝術·外交·國防 等 各方面에 걸쳐 指導的 役割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中共社會의 變化·發展이라는 條件의 變化에 毛澤東哲學思想의 內容도 더욱 深化·發展해갈 것이고 또 이 哲學思想은 다시 中共의 變化·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辯證法的인 運動을 無限히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본다.

以上の 全體內容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毛澤東哲學思想的 形成과 發展

